

POLITICS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지금은 이재명”...광주 각계 지지 선언 봇물

광주 청년정책 홍보 ‘특파원’
영상 콘텐츠 제작해 정책 전달

광주시가 청년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청년특파원’을 운영한다.

‘청년특파원’은 청년의 시각에서 광주 시 청년정책을 취재하고 영상·사진·글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또래 청년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은 콘텐츠 제작 역량이 있는 광주 청년이며, 블로그(글·사진) 8명과 영상(유튜브) 분야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한다. 참여자는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센터에 문의하거나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특파원은 이달 말 발대식과 실무교육을 거친 후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참여자 전원에게 명함과 함께 활동비(블로그 6만원·영상 13만원)가 지급되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도 제공한다. 활동을 성실히 마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양동민 기자

여수섬박람회 인정상품 모집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접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인정상품’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정상품’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에 섬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섬박람회와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 상품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전남도 내 기업 제품으로,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섬박람회 종료 시까지 통합상표 사용기간이 유효한 제품, 조직위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우수상품이다.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며, 품목당 수수료는 50만원이다. 선정은 품질, 시장성, 브랜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진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교수·체육단체·요양사협회 등 각 분야 직능단체 동참
절체절명 위기 극복...‘진짜 대한민국’ 앞장 설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14일 하루에만 6건의 지지 선언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매일 3~4건 이상의 지지 선언이 예약돼 있다.

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교수 연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광주지회, 더민주위원회 5개구협의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지회, 광주시웃살연대 등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전남 교수연대는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포용력과, 96%의 공약이행율로 ‘성공적인 국정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으로 당선되도록 정책적 제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광주지회(공동 대표 백희숙, 광주지회장 김상옥)는 “유아교육의 공정한 통합, 균형 있는 재정지원, 교사의 전문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교육복지 국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후보를 공식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더민주 위원회 5개구협의회는 “소수 특권·기득권 세력에 맞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광주지회가 14일 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 사무실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요양보호사 협회는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사람은 오직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지회는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와 환자 중심의 의료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고 선진 돌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 후보다”고 밝혔다.

앞서 13일에는 광주지역의 산업, 복지, 주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들

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광주 대표산업 협의회, 서구지역 이동돌봄 종사자 140여 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지회 등은 “이 후보는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리더십을 가진 후보”라며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가 요구하는 미래로의 도약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이 살아나는 광주,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광주,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광주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그 출발점은 이 후보”라고 강조했다.

광주대표산업협의회는 지역의 반도체·데이터·미래모빌리티·인공지능·문화콘텐츠·에너지·메디컬스캐어·광융합·스마트뿌리·반도체·디자인 등 11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산·학·연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주의 꽃은 선거, 사전 투표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4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 투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순찰차 납품지연·유착의혹...자료제출 거부”

신정훈 “경찰청, 위법·잘못 은폐하려는 행태”

경찰청이 수백억 원 규모의 순찰차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면서 계약 책임 회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직무 유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

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중 343대(225억원 상당)가 납기일을 수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납품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완성검사조차 반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의 반복된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예외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산하 꿈사니즘위원회(위원장 이개호·송옥주 의원)가 최근 국회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꿈사니즘위원회 출범

이개호 위원장 “기조 ‘경청’...현장중심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산하 꿈사니즘위원회(위원장 이개호·송옥주 의원)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꿈사니즘위원회는 AI와 K-콘텐츠,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나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민주당 선대위 조직으로 산하에 10여 개 개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이개호, 송옥주 꿈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산하 위원회인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방송콘텐츠위원회 이훈기 위원장이 함께했고, 전국정당추진위원회 조완재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앞으로 중추적 활동을

하게 될 내외부 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상견례를 겸한 참석자 소개 및 영상사청, 각 위원장 인사말을 듣고 대선 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개호 위원장은 “꿈사니즘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의 기본은 ‘경청’을 기조로 절제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꿈사니즘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러한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축제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 봄시즌 활짝

‘광주방문의 해’ 맞아 사계절 확대...5·6월 봄축제 첫선

11개 이벤트로 구성...민주대축제와 연계, 25일간 진행

지난해 가을 첫선을 보인 축제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가 올해는 계절의 여왕인 봄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G-페스타 광주’를 5월부터 6월까지 2개의 테마로 구성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관광공사와 각각의 축제 개최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홍보마케팅, 콘텐츠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관광객 증가, 관광이미지 제고 등 호평을 받은 ‘G-페스타 광주’는 올해에도 도시 전역을 하나의 축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광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페스타 광주’ 봄시즌은 모두 11개의 축제·행사로 구성되고 ‘오월광주’ 테마와 ‘열정×익사이팅’ 테마로 구분해 운영한다. 특히 ‘오월광주’는 제45주년 오월광주 민주대축제와 연계해 풍성하고 다양한 광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테마1-오월광주
첫 번째 테마인 ‘오월광주’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6개의 축제·행사로 구성된다.

먼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평화와 연대-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는 민주평화대행진과 시민난장 등 전야행사와 오월강연대회,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주생일인 ‘시민의 날’은 24일 60회를 맞아 시청 일원에서 기념식, 신투게드, 워터슬라이딩, 정책평가바람회 등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민주·인권·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A시대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토론 및 토크콘서트인 ‘광주국제인문워크’가 28~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무등올림축제’는 24~25일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주제로 전통 문화예술공연, 문화장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리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는 동구 중심사지구에서 초록의 싱그러움 자연과 인문·예술이 더해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테마2-익사이팅한 광주
두 번째 테마인 ‘열정×익사이팅’은 오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5개의 축제·행사로 지역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호남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시회인 ‘광주식품대전’과 커피 등 차와 디저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티엔카페쇼’, 전 세계 다양한 주류 시음 및 구매 등 직접 마셔보고 즐기는 ‘광주주류관광페스타’ 총 3개의 대규모 박람회가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스트리트댄스 흥행몰이 1번지 ‘광주스트리트컬처페스타’는 6월 5일부터 8일까



광주시는 ‘G-페스타 광주’를 5월부터 6월까지 2개의 테마로 구성해 확대 운영한다.

지 전문댄서들의 경연대회인 ‘베틀리엄’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스트리트컬처에 대한 전시, 토크, 뮤지컬 등을 통해 서로의 취향과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햇츠플로피3.0’은 6~7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열정×익사이팅’이 열리는 기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플라마켓, 맥주축제, 길거리농구를 즐길 수 있는 광장문화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시민과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제·행사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오월 스탬프투어’도 운영해 참여한 분들께 광주관광기념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스탬프투어 및 봄시즌 축제·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G-페스타 광주 공식 홈페이지(https://g-fes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G-페스타 광주’ 브랜드 확산을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G-페스타 광주’를 집중 홍보하고, 행사장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해 관광객이 다시 광주를 찾아오게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계절별 주요 축제와 시민 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 브랜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